

특집
논문

한국의 저항주기 궤적과 역사적 사회운동의 형성

저항사건분석, 1960~1987

홍성태 _고려대학교

논문요약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와 그 궤적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저항사건분석의 연구방법을 동원해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첫째, 민주화운동의 퇴적층을 이룬 수많은 시위들이 시계열적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저항주기 궤적을 형성했는가?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 저항주기의 내적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주체적 차원에서 저항주기를 추동한 사회세력은 누구였는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저항주기를 주조한 집합적 저항의 동학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상징의 해석과 재해석을 넘어 일련의 저항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적 저항들의 거대한 퇴적층을 면밀하게 훑아보는 기초작업 위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 주요어: 저항의 주기, 역사적 사회운동, 민주화운동, 저항사건분석, 사회변동

* 이 논문은 유익한 비판과 조언을 해준 세 분의 심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빛을 졌다.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후속연구를 통해 보답할 길을 찾고자 한다.

1. 서론: 왜 저항주기인가?

이 연구는 권위주의국가의 지배적 힘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작용을 ‘저항의 주기(cycles of protest)’에 초점을 두어 재조명한다. 특히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라 일컫는 권위주의시대에 전개된 집합적 저항의 역사적 궤적을 ‘거리의 정치’와 그 사건사적 맥락에 기초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저항사건분석(protest event analysis)’의 연구방법을 동원한다. 저항사건분석은 1960년대 이래 30여 년간 장기 지속된 집합적 저항이 언제, 어디서, 얼마나, 누구에 의해 발생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 다시 말해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 혹은 저항파동(waves of protest)의 형성과 그 변화의 내적 동학을 훑어볼 수 있는 지도를 제공한다. 우리는 저항사건분석을 통해 제작한 민주화운동의 새로운 지도에서 집합적 저항의 지형과 고도를 읽어낼 수 있다. 요컨대 이 연구는 저항사건분석에 기초해 집합적 저항이 만든 저항주기를 실증적·입체적 차원에서 재조명하는 시도라고 소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저항주기인가?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연구자들은 저항주기의 개념을 “사회체계 전역에 걸쳐 고조된 갈등의 국면”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Tarrow 1998, 142). 저항주기는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국면을 포착하는 데 상세한 지도를 제공해준다. 또한 저항의 지리적·부문적 확산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와 더불어 사회운동의 조직화와 새로운 의미의 프레임, 레퍼토리의 확장 등에 관한 분석에 유용한 설명틀로 사용된다(Tarrow 1995, 92-95; Koopmans 2004). 우리는

저항주기를 중심으로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역사의 어느 한 특정한 시점에 집합적 저항을 일으켰는지, 그리고 내적 동학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저항주기는 사회변동을 추동한 집합적 저항이 만들어낸 운동에너지의 비선형적 파동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저항주기연구는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을 이끌어낸 집합적 저항과 그 힘의 과정에 관한 탐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논점은 저항주기의 구조와 동학을 분석하는 실증적 연구의 이로운 점일 것이다.

저항주기에 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민주화운동연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사회운동에 대한 비교역사연구의 확장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하나의 통합적 단일 운동으로 해석하는 인식론적 경향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구들은 민주화를 목적으로 분출한 여러 형태의 대중 저항을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이라고 정의한다. 이로부터 권위주의시대에 출현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의도치 않게 마치 동일한 이념과 목적을 갖는 것처럼 해석되는 경향이 짙어졌다. 하지만 민주화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특정 시간대의 단일한 이념과 목적에 국한되지 않은 다층적·복합적 저항사건들을 포괄한다. 특히 시간의 추이,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건, 운동주체의 사회구성적 특징, 전략과 전술, 운동리더십, 동맹세력의 존재, 집합적 저항의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항을 촉발한 사건의 맥락과 특성 등에 따라 집합적 저항은 다변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에 관한 비교역사적 관점과 실증적 분석이 요청된다. 저항

주기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를 비교역사연구의 지평 위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저항주기의 다차원적 내용들을 새롭게 도출함으로써 기존 연구들에서 암묵적으로 강조해왔던 민주화운동에 관한 획일화된 당위성과 때로는 과도하게 주관적인 해석적 접근의 한계를 성찰할 수 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의 개입을 최소화한 저항주기 그 자체에 관한 경험적 분석이다. 그리고 그 시작은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낼 수 있는 객관화된 해석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거리의 정치에 실제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였나? 저항의 실제 규모는 어느 정도였으며, 얼마나 지속되었나? 저항주기의 촉발과 확산은 어떤 경로에서 이루어졌는가? 이와 같은 연구 질문은 상징적으로 정의된 일련의 저항사건들에서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재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지속의 역사구성적 층위에서 이들 저항사건들이 만들어낸 저항주기의 정치과정을 되짚어볼 것을 요청한다. 또한, 저항의 주체 혹은 세력에 초점을 두어 학생운동, 재야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한 여러 부문운동 등으로 세분화된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서술하기보다 저항주기에서 이들 운동주체의 사회적 관계와 그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일종의 토대 연구에 새로운 관심을 집중시킨다.

셋째,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에 관한 연구는 사회변동의 리듬 위에서 크고 작은 파동을 이끌어낸 집합적 저항의 힘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논점을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민주화운동연구들은 집합적 저항의 과정과 결과를 단선적인 차원에서 규명하거나 상징의 해석과 재해석을 통해

현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운동의 경험과 기억을 제도적·문화적 차원에서 전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운동연구가 더욱 분석적인 연구과제를 추구하는 데 적지 않은 부작용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동학과 그 사회적 결과를 사회변동의 맥락 위에서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 이런 점에서 민주화운동연구의 새로운 과제는 사회변동을 추동한 집합적 저항의 힘을 더욱 입체적이고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연구방법과 해석틀이 요구된다. 저항주기는 사회변동의 리듬 위에서 발생한 집합적 저항의 동학을 힘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훑어볼 수 있는 중요한 논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대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와 그 궤적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물음을 중점적으로 탐구한다. 첫째, 민주화운동의 퇴적층을 이룬 수많은 시위들이 시계열적 차원에서 어떤 형태의 저항주기 궤적을 형성했는가? 저항주기의 궤적을 시위빈도, 동원규모, 프레임 지속성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탐색한다. 둘째, 공간적 차원에서 저항주기의 내적 구성은 어떠한가? 집합적 저항의 발생지역을 살펴봄으로써 저항주기의 지리적 집중과 확산을 실증적으로 재조명한다. 셋째, 주제적 차원에서 저항주기를 추동한 사회세력은 누구였는가? 저항주기에서 두드러진 참여세력의 단위 구성과 그 변화를 추적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저항주기를 주도한 집합적 저항의 동학에 더욱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상징의 해석과 재해석을 넘어 일련의 저항사건들로 이루어진 집합적 저항의 거대한 퇴적층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기초작업 위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

2. 저항사건분석의 연구대상과 방법

이 연구의 일차적 연구 대상은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이다. 민주화운동은 크고 작은 일련의 저항주기를 중심으로 자기변형의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그리고 저항주기에는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으로 맥락화된 거대한 저항의 역사적 사건들이 들어차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역사적 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1960년대의 4월혁명과 한일협정반대운동, 1970년대의 유신반대운동과 부·마 항쟁, 19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과 6월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의 궤적에 저항주기를 형성한 역사적 사회운동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1960년부터 1987년까지 걸쳐 도드라진 저항주기의 내적 구성을 여러 측면에서 훑아보면서 저항주기의 기동을 이루는 역사적 사회운동의 발생학적 맥락을 탐색하는 데 분석의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저항사건분석의 연구방법을 동원함으로써 저항주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시도한다. 저항사건분석은 1960년대 이래 한국 민주화운동의 구조와 역동성을 저항의 사건사로 구조된 사회변동의 맥락 위에 배치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저항사건분석은 지난 몇십 년에 걸쳐 수많은 저항들의

발생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며 해석하기 위한 내용분석의 수단으로 발전했다. 주로 신문기사에 의존하는 이 연구방법은 저항사건의 빈도와 시기, 지속기간, 주장, 동원규모, 집합적 행위의 형태, 견인차, 목표 등을 정량화함으로써 사회운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을 가능케 한다(Koopmans and Rucht 2002). 실제로 사회운동연구에서 대부분의 경험적 조사들이 신문에 보도된 사건자료를 분석의 기초로 삼았다. 예를 들어 정치과정모델과 정치적 기회(Eisinger 1973; Jenkins and Perrow 1977; Tarrow 1989; McAdam 1999), 저항의 주기(Koopmans 1993; Tarrow 1995), 서유럽의 신사회운동을 비교역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연구들(Kriesi et al. 1995; Rucht 1998; Giugni 2004)에 이르는 광범한 경험적 조사연구들이 신문의 사건자료에 크게 의존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신문기사를 자료원으로 민주화 이후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를 분석한 연구(홍덕화·구도완 2014)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신문자료는 모든 저항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제니퍼 얼과 그의 동료들(Earl et al. 2004)이 지적했듯이, 신문보도에만 의존하여 수집된 자료들은 사건의 유형, 언론매체의 이데올로기적 경향, 저항의 쟁점 등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게다가 신문기사는 참여동기나 조직화의 방식과 같은 운동의 내적 측면들을 밝히는 데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 기회구조가 보도되는 사건의 내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집회나 시위의 동원규모만 보더라도 경찰 추산과 주최 측의 추산이 일치하는 경우는 드물다. 또한 한국과 같은 권위주의체제에서는 언론매체에 권력

을 행사해 보도 자체를 금지하거나 왜곡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그럼에도 운동연구자들은 신문기사를 저항사건분석의 핵심적인 1차자료로 사용한다. 그것은 신문자료를 객관적으로 신뢰해서가 아니다. 신문기사는 단지 현재까지의 연구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일 따름이다. 이런 점에서 저항사건분석은 과거의 저항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온전히 복원하기 위한 보완적 자료수집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쿵만스와 루흐트(Koopmans and Rucht 2002, 238)가 강조했듯이, 다양한 원천(multiple sources)으로부터 자료를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을 고려할 경우 코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추가적인 사건이나 같은 사건에 부가적인 정보를 만족스럽게 얻어낼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권위주의시대의 언론통제 경향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해놓은 규칙과 조사원칙에 따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건정보를 얻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저항사건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를 다음과 같이 구성했다. 우선, 민주화운동의 시기를 10년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는 각 시기의 운동사적 맥락을 일차적으로 규정한 역사국면의 리듬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4월혁명으로 시작된 1960년대가 이승만 정권의 몰락 이후 박정희의 쿠데타가 주도한 ‘분단·국가주의’의 원형기였다면, 1970년대는 유신체제라는 ‘준전시동원체제’로의 재편을 통한 억압구조의 확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조대엽 2010; 정일준 2011). 그리고 1980년대는 부·마항쟁으로 유신체제 내부에 파열구가 발생한 틈을 전두환과 신군부 세력이 장악하면서 분단·국가주의의 내적 변형과 심화가 이루어진 시기

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국면의 리듬 변화는 역사적 사회운동의 형성과 저항주기의 궤적에 거시구조적 규정력으로 작용했다.

다음으로 사건자료의 1차적 수집은 ‘네이버 뉴스라이브리’에서 1960~1987년까지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기사검색으로 진행했다. 데이터 베이스는 집합적 저항과 관련한 시대별 주요 키워드의 검색순서를 정해놓고 검색결과에서 추출한 정보를 덧칠하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예를 들어 ① 데모, ② 시위, ③ 집회, ④ 농성, ⑤ 저항, ⑥ 항의, ⑦ 투쟁, ⑧ 성토타회, ⑨ 행진, ⑩ 최루탄 등의 키워드 검색순서에 따라 기사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사건의 내용을 입력했다. 또한 시위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980년대의 경우, 기초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80년대) 보고서 I·II』(2004)를 참조하여 확인하고, 전체적으로는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2006)의 자료와 대조해 정확도를 높이고자 했다. 자료조사의 내용으로는 집합적 저항사건의 발생시기, 지역, 주체, 이슈 및 주장, 동원규모, 시위방식, 기타 특이사항, 출처 등을 기록했다. 이를 통해 ① 민주화시위의 발생빈도, ② 동원규모, ③ 저항주기의 프레임 지속도, ④ 민주화시위의 발생지역, ⑤ 참여주체 등을 분석하는 기초자료를 구축했다. 또한 이 연구의 분석 내용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저항의 전략적 프레임 이슈, 전술적 레퍼토리, 저항과 억압의 폭력적 상호작용 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초자료 수집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전략, 공간과 행위의 전술, 저항주기의 폭력성 구조 등에 관한 실증적 논의의 기초를 마련했다.

〈표 1〉 저항사건분석의 연구설계

시기구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사건자료의 수집	동아일보, 경향신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DB		
검색 주제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합적 저항의 의미어와 연관어: 데모, 시위, 집회, 농성, 저항, 항의, 투쟁, 성토대회, 행진, 최루탄 등 • 기타 검색: 운동조직, 사건명, 구속자 수, 연행자 수, 기타 특이사항 		
자료조사의 내용	코딩 항목: 집합적 저항의 발생시기, 발생지역, 저항주체, 동원규모, 요구 및 주장, 시위방식, 기타 특이사항, 출처 등		
분석의 주요 내용	시위빈도, 동원규모, 저항프레임 지속도, 시위 발생지, 참여세력, 전략적 프레임 이슈, 전술적 레퍼토리, 저항과 억압의 폭력적 상호작용 강도 등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노동쟁의 혹은 노사분규와 같은 노동조합 중심의 ‘조직화된 노동운동’을 분석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노동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이행과정에서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했던 사실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엄밀한 의미에서 노동운동이 민주화운동과 온전히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권위주의시대 국가권력이 “노사갈등을 정치화하고 노동투쟁과 민주화운동 간의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주목했다(구해근 2002, 46). 이런 배경에서 이 연구는 권위주의시대 노동운동의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했다. 즉, 국가권력을 겨냥한 노동의 저항, 특히 노학연대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합시위나 노동자들에 의한 민주화시위의 경우 저항프레임과 결부된 사건만을 선택적으로 다루었다.

3.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와 저항주기

일반적인 의미에서 민주화운동은 권위주의시대를 역사적 배경으로 국가권력에 항거한 아래로부터의 대중저항을 지칭한다. 그래서 많은 눈자들이 민주화운동을 특정한 시대와 목표를 공유하는 하나의 통합적 단일운동으로 해석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권위주의시대에 전개된, 넓은 의미에서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여러 형태의 집합적 저항을 민주화운동으로 포괄하였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민주화운동은 특정 시간대의 단일한 사건과 목적에 국한되지 않는 역사적·복합적 층위로 이루어졌다. 30여 년에 걸친 장기지속의 민주화운동은 저항의 시간과 공간, 목적과 주체, 신념과 표출 방식, 전략과 리더십,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 같음과 다름 또는 연속과 단절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사건사적 맥락에 기초한 저항주기를 분석단위로 하여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표 2〉는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를 보여준다. 민주화운동은 지층이 형성되는 원리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여러 형태의 수많은 저항사건들이 일차적 기반을 이룬다. 예를 들어 1960년대 전개된 3·15부정선거반대시위, 반혁명세력척결시위, 2대악법반대시위, 군정연장반대시위, 한일협정반대시위, 6·8부정선거규탄시위, 3선거헌반대시위 등이 당대 집합적 저항의 퇴적층을 형성한다. 그리고 퇴적된 저항사건들 가운데 각 시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강력한 저항들이 두드

〈표 2〉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

구분	민주화운동(1960~1987)
	1980년대의 저항주기
역사적 사회운동	광주민중항쟁(1980), 6월민주항쟁(1987)
주요 저항운동	계엄철폐운동(80), 목동철거민투쟁(84), 서울미문화원점거농성(85), 직선제개헌 서명운동(86), 건국대점거농성(86), 4·13호헌조치철폐투쟁(87), 6·10항쟁(87), 6·26국민대행진(87)
저항의 주요 이슈들	학원민주화, 계엄철폐, 강제징집철폐, 학원자율화, 노동탄압중지, 노동3권쟁취, 여속경제타도, 민주개헌쟁취, 호헌철폐, 독재타도, 직선쟁취
	1970년대의 저항주기
역사적 사회운동	유신반대운동(1973~75), 부·마항쟁(1979)
주요 저항운동	교련철폐운동(71), 4·27부정선거규탄시위(71), 10·2시위(73), 개헌청원100만 인서명운동(73), 10·16부산민주항쟁(79), 10·18마산민주항쟁(79)
저항의 주요 이슈들	교련강화반대, 학원자율화, 긴급조치철폐, 언론자유수호, 유신헌법철폐
	1960년대의 저항주기
역사적 사회운동	4월혁명(1960), 한일협정반대운동(1964~65)
주요 저항운동	2·28대구민주화운동(60), 3·15의거(60), 4·19혁명(60), 6·3항쟁(64), 한일협정 조인비준반대시위(65), 6·8부정선거규탄시위(67), 3선개헌반대운동(69)
저항의 주요 이슈들	3·15부정선거반대, 반혁명세력척결, 2대약법반대, 군정연장반대, 한일협정비준 반대, 6·8부정선거규탄, 3선개헌반대

러진다. 여기서 우리는 저항의 사건사로 구조화된 거대한 퇴적층 안에서 사회변동을 이끌어낸 역사적 사회운동을 발견할 수 있다. 4월혁명(1960), 한일협정반대운동(1964~1965), 유신반대운동(1973~1975), 부·마항쟁(1979), 광주민중항쟁(1980), 6월민주항쟁(1987) 등이 역사적 사회운동으로서 사회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규모의 집합적 저항이라는 맥락성을 가진다. 이러한 역사적 사회운동은 크고 작은 집합적 저항사건들이 만들어낸 저항의 거대한 집락구조로서 저항의 주기를 구조화한다.

〈표 3〉 전체 시위의 발생 건수, 1960~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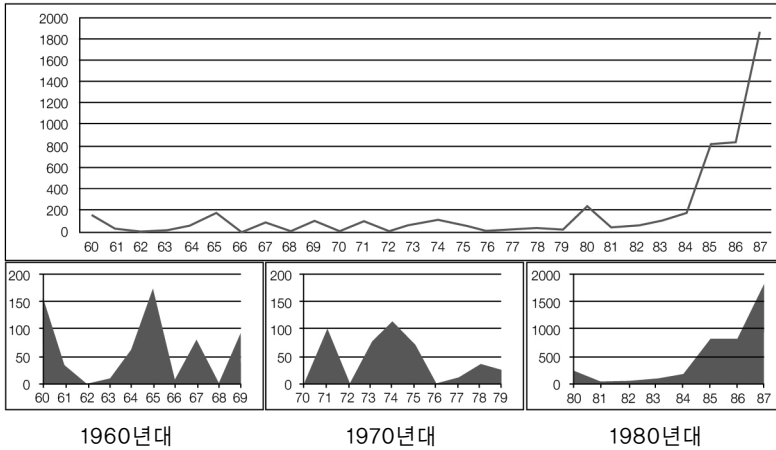
구분	전체 시위발생 건수	민주화시위	
		발생 건수	비중(%)
1960년대	677	627	92.61
1970년대	575	459	79.83
1980년대	4,232	4,148	98.02
합계	5,484	5,234	95.44

이제 민주화운동의 역사구성적 층위를 형성한 크고 작은 또는 지속적이거나 일시적인 일련의 집합적 저항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넓게 펼쳐 보자. 주지하듯이, 4월혁명에서 6월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30년 가까이 걸쳐 전개된 일련의 민주화시위들이 있었다. 민주화시위는 관제시위와 사익시위를 포함한 전체 시위 가운데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60년부터 1987년까지 거리로 분출한 시위는 총 5,484건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 95.44%에 해당하는 5,234건이 민주화시위로 분류된다. 이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960년대 총 677건의 시위 가운데 627건(92.6%), 1970년대 575건 중 459건(79.8%), 1980년대에는 4,232건 가운데 4,148(98%)건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궤적을 형성하였다. 1970년대의 민주화시위 비율이 다른 시대보다 낮았던 이유는 시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유신체제 하의 폭압적인 정치적 기회구조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관제시위’가 많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민주화시위의 발생빈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가 ‘역사적 사회운동’이라고 정의한 대규모 집합적 저항들을 중심으로 저항의 주기가 반복적으로 형성되었음을 확인

〈그림 1〉 민주화시위의 발생빈도, 1960~1987

(단위: 건)



할 수 있다. 〈그림 1〉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에서 저항이 두드러지게 고조된 8차례의 주기적 국면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저항주기별로 민주화시위의 발생빈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차 주기가 들어선 1960~1961년에는 195건, 2차 주기인 1964~1965년 사이에 235건, 1967년의 3차 주기에는 83건, 4차 주기를 이루는 1969년에는 95건을 기록했다. 이에 비해 1970년대에는 두 차례의 저항주기가 발견되는데, 5차 주기인 1971년에는 102건의 민주화시위가 발생했고, 1973~1975년 사이에는 266건의 시위가 6차 주기를 형성했다. 1980년대에 나타난 저항의 주기는 규모와 지속성의 측면에서 기존의 저항주기를 압도했다. 7차 주기인 1980년에 233건의 시위를 시작으로 1984~1987년 사이에는 총 3,699건의 민주화시위가 거대한 저항의 주기를 이루었다.

그리고 고조된 저항의 국면들에서는 역사적 사회운동이 저항주기를 받치는 기동처럼 들어차 있다. 1960년(1차 주기)의 4월혁명, 1964~1965년(2차 주기)의 한일협정반대운동, 1967년(3차 주기)의 6·8부정선거규탄시위, 1969년(4차 주기)의 3선개헌반대운동이 1960년대 저항주기의 골격을 형성했다. 또한 1971년(5차 주기) 교련철폐운동과 4·27부정선거규탄시위가 저항주기를 이루었으며, 1973~1975년(6차 주기) 사이에 두드러진 유신반대운동이 1970년대의 대표적인 저항주기를 구조화했다.¹⁾ 마지막으로 1980년대에는 1980년(7차 주기) 서울의 봄과 광주민주항쟁에 의해 고조된 저항주기의 국면이 마련되었고, 1984~1987년(8차 주기)에 걸친 거대한 저항주기에서는 6월민주항쟁이 민주화운동사의 장기 궤적에 절정의 국면을 형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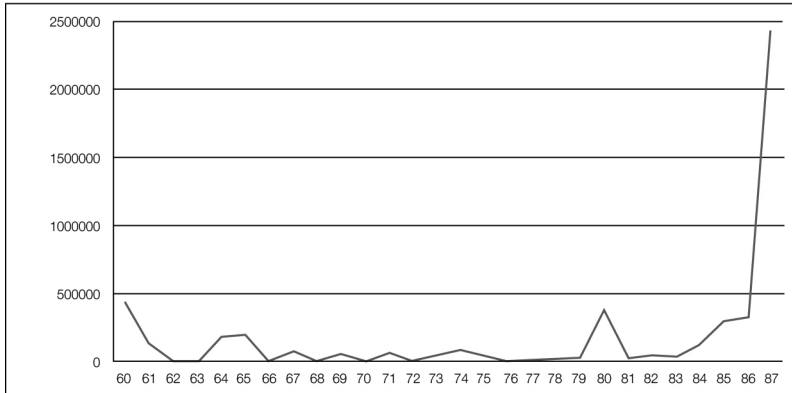
한편, 동원규모의 측면에서도 뚜렷한 저항주기의 패턴을 읽을 수 있다. <그림 2>에서처럼 민주화시위의 동원규모는 발생빈도를 통해 본 저항주기와 대단히 유사한 패턴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1>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원규모의 측면에서 나타난 저항주기는 1960~1961년, 1964~1965년, 1967년, 1969년, 1971년, 1973~1975년, 1980년, 1984~1987년으로 총 8차례의 크고 작은 파동을 형성했다.

이처럼 민주화시위의 발생빈도와 동원규모의 측면에서 나타난 고조

1) 1979년의 부·마 항쟁은 저항의 주기에서 나타나는 ‘폭과 높이’, 즉 시위의 지속성과 빈도로 설명할 수 없다. 대신 부·마 항쟁은 저항의 질적인 특성과 강도 그리고 유신체제 내부에 파열구를 형성했다는 측면에서 역사적 사회운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림 2〉 민주화시위의 동원규모, 1960~1987

(단위: 명)



된 갈등의 국면은 저항주기의 궤적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들만으로 저항주기가 갖는 특성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저항주기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항의 지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프레임 지속성, 즉 저항주기 안에서 동일한 프레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위빈도와 동원규모가 저항주기의 높이와 세로축을 형성한다면, 프레임의 지속성은 저항주기의 가로축(폭)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시위빈도, 동원규모, 저항의 지속도는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를 산출하는 데 핵심적인 지표로 작용한다.

〈표 4〉는 저항주기의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갈등이 고조된 국면들의 입체적 크기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우선, 시위의 발생빈도는 저항주기가 얼마나 높이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시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저항주기를 나열하면, 8차 주기, 6차 주기, 2차 주기, 7차 주기,

〈표 4〉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 시위빈도, 동원규모, 저항의 지속도

저항의 주기	저항의 고조기	시위빈도 (건)	동원규모 (만 명)	저항의 지속도(년)*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
1차 주기(1960-61)	1960	195	56	1,25	13,650
2차 주기(1964-65)	1965	235	38	1,50	13,395
3차 주기(1967)	1967	83	7	0,5	291
4차 주기(1969)	1969	95	5	0,5	238
5차 주기(1971)	1971	102	6	1,25	765
6차 주기(1973-75)	1974	266	17	1,50	6,783
7차 주기(1980)	1980	233	37	0,75	6,466
8차 주기(1984-87)	1987	3,699	318	3,75	4,411,058

주: * 저항의 지속도 - 저항주기 안에서 동일한 저항 프레임이 지속되는 정도(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측정함, 분기당 0,25년)

**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 = 시위빈도(건) × 동원규모(만 명) × 저항의 지속도(년)

1차 주기, 5차 주기, 4차 주기, 3차 주기로 정렬할 수 있다. 하지만 저항의 고조기만을 놓고 시위의 발생빈도가 높은 시기를 추려내면 1987년(1,852건), 1980년(233건), 1965년(172건), 1960년(160건), 1974년(115건), 1971년(102건), 1969년(95건), 1967년(83건)의 순서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저항의 주기가 압도적으로 높이 형성된 시기는 8차 주기에 속하는 1987년이다. 그리고 3차, 4차, 5차 주기를 제외한 나머지 1차, 2차, 6차, 7차 주기가 높이와 폭의 측면에서 상쇄작용을 일으키며 순서를 달리한다.

동원규모는 시위의 발생빈도와 함께 저항주기의 중요한 양적 지표를 구성한다. 동원규모가 높은 순서대로 저항주기를 나열할 경우에도 8차 주기가 대략 318만 명으로 압도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차 주기가 56만 명으로, 시위빈도와 달리 동원규모의 면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수치를 보인다. 그 뒤를 이어 2차, 7차, 6차 주기가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항의 고조기만을 놓고 동원규모의 순서를 따질 경우, 1987년(242만 명), 1960년(43만 명), 1980년(37만 명), 1965년(19만 명), 1974년(8만 명), 1967년(7만 명), 1971년(6만 명), 1969년(5만 명)의 순으로 정렬된다.

다른 한편, 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저항의 지속도는 저항주기의 폭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입체적 크기를 산출하는 데 중요한 지표로 작용한다. 어떤 동일한 목적을 중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위에, '얼마 동안' 시위를 지속했는지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저항의 지속도가 높은 주기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8차 주기(3.75년), 2차·6차 주기(1.5년), 1차·5차 주기(1.25년), 7차 주기(0.75년), 3차·4차 주기(0.5년)로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양적 지표를 중심으로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를 산출해보면, 단연 8차 주기가 나머지 7개의 저항주기들에 비해 압도적인 크기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8차 주기, 1차 주기, 2차 주기, 6차 주기, 7차 주기, 5차 주기, 3차 주기, 4차 주기의 순으로 정렬된다.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에 관한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논점을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퇴적된 수많은 집합적 저항들이 총 8차례의 저항주기를 형성했다. 이 가운데 규모와 범위의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5개의 저항주기가 있다. 1차 주기(1960~1961년), 2차 주기(1964~1965년), 6차 주기(1973~1975년), 7차

주기(1980년), 8차 주기(1984~1987)가 그것들이다. 둘째, 저항주기의 갈등이 고조된 국면에는 역사적 사회운동이 도드라졌다. 1차 주기에 들어찬 4월혁명, 2차 주기의 한일협정반대운동, 6차 주기의 유신반대운동, 7차 주기의 광주민중항쟁 그리고 8차 주기의 6월민주항쟁이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저항주기를 양적으로 구성하는 세 가지 지표들은 주기의 형성과정에 불규칙하게 작용하여 저항주기의 형태를 다르게 구조화했다. 규모의 면에서 압도적인 8차 주기를 제외하고, 시위의 발생빈도, 동원규모, 저항의 지속성이 동시에 비례하는 저항주기는 없다. 저항주기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서로 다른 조건에서 역사적 사회운동을 만들어낸 개별 저항사건들의 퇴적과 더불어 시대별 저항의 자장에서 구조화된 운동전략과 그 운동성의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4. 저항주기의 공간구조: 시위발생의 지역적 구성

어떠한 형태의 집합적 저항일지라도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집회나 시위의 형식을 띠는 경우 자신들의 요구와 주장을 표현하고 대중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가장 최적화된 장소를 선택한다. 이런 점에서 저항에 대한 지리학 분야의 연구는 공간과 저항의 상호 연관성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저항행동이 발생하는 공간의 유형뿐만 아니라 저항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과 방식, 권력관계, 정체성, 상징성 등 이른바 저항의 지리적 표상(geographical representation)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에 관심을 갖는다(Pile and Keith 1997).

그러나 사회운동연구에서 저항의 공간성 문제는 여전히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²⁾ 이는 사회운동연구가 사회변동을 다루면서 시간과 공간의 분석 축 가운데 역사적 시간대를 중심으로 한 운동사 혹은 사건사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최근 사회운동연구의 주요 경향 가운데 하나로 양적 자료를 수집해 저항의 패턴을 분석한 논의들에서도 저항의 공간성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는 기초 자료의 속성상 저항의 공간 혹은 발원지를 통일성 있게 추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³⁾ 기존 연구의 이러한 한계를 고려해, 이 연구는 민주화시위가 발생한 주요 지역들을 도시단위로 파악하면서, 저항주기의 전국적 확산성

2) 특히 저항의 문제를 가장 폭넓게 다루는 사회학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광주 의 충장로와 금남로를 중심으로 도시 공간이 지닌 지배와 저항의 대립지로서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왔는가를 사회사적으로 접근한 정호기(1996)의 연구를 제외하면 저항의 공간성을 다룬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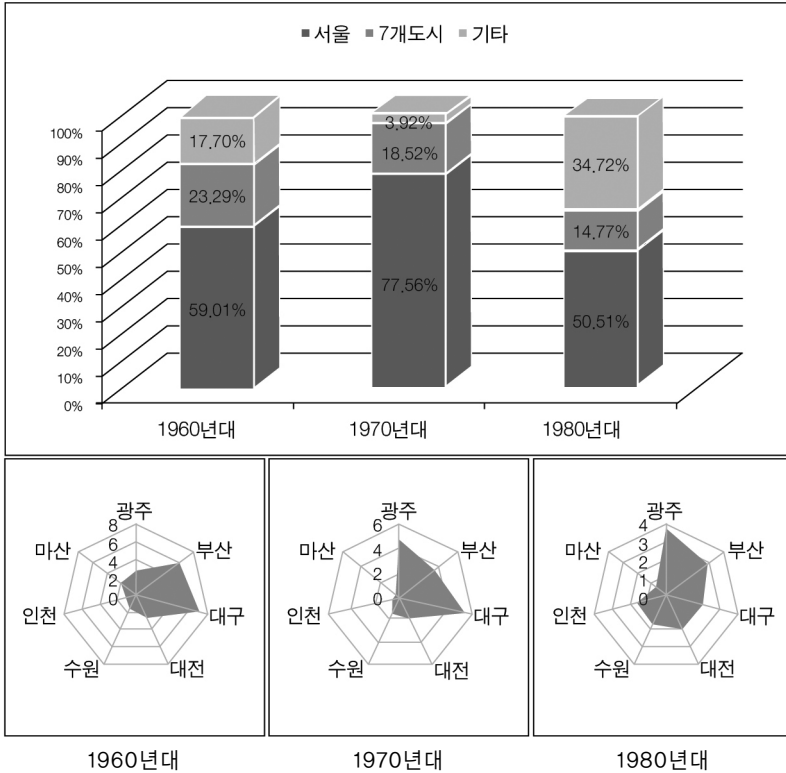
3) 한국의 민주화운동(1970~1993)에 관한 양적 분석을 시도한 Shin, Chang, Lee, and Kim(2007)의 조사연구도 저항의 발원지를 다루지 않았다. 그들이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 자료집(sourcebook)은 2003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추진한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였는데, 그 조사연구에서는 사건의 입력을 사건명, 발생일, 사건의 배경 및 내용, 관계 인물 및 단체, 관계 자료 및 사건으로 구분하는 형식을 따랐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두어 저항의 공간성에 주목해 조사연구를 설계했다. 다만, 신문기사의 내용상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저항의 공간성을 통일성 있고 세밀하게 추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 지역을 신문기사에 따라 코딩하되 실제 분석에서는 도시를 기초 단위로 설정해 논의했다.

혹은 지역적 다양성과 결합시키고자 했다. 다시 말해, 시위발생의 공간적 분포를 저항주기의 전국적 분산과 집중이라는 맥락에서 좀 더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를 설계했다.

시위가 주로 어느 지역에서 발생했는지를 탐구하는 작업은 저항주기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이 대목에서 저항주기의 지역적 구성에 관한 논의에 앞서, 시대별로 어느 지역에서 시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림 3>은 1960년부터 1987년까지 발생한 민주화시위의 지역분포를 시대별로 시각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시위발생의 지역적 분산과 집중에 관해 적어도 세 가지의 주요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시위가 집중된 시기는 1970년대로, 서울에서의 시위 집중도가 높을수록 광주, 부산, 대구, 대전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시위발생 비중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경향이다. 서울의 시위발생 비율이 1960년대 59.01%, 1970년대 77.56%, 1980년대 50.51%를 보일 때, 이와 반비례해 기타 지역에서의 시위발생 비율은 1960년대 17.7%, 1970년대 3.92%, 1980년대 34.72%로 나타났다.

둘째, 7개 주요 도시에서의 시위발생 비율은 1960년대 23.29%에서 1970년대 18.52%로 낮아지고 1980년대에는 14.77%를 차지해 전반적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7개 도시들에서의 시위는 어느 특정 도시에 집중되기보다 점차 분산되는 경향을 수반했다. 특히 1980년대에는 대도시들의 외곽에 위치한 기타 지역들에서 시위발생 비중이 높아지면서 시위의 분산화 혹은 전국화 경향

〈그림 3〉 시위발생의 전국적 분산과 집중, 1960~1987



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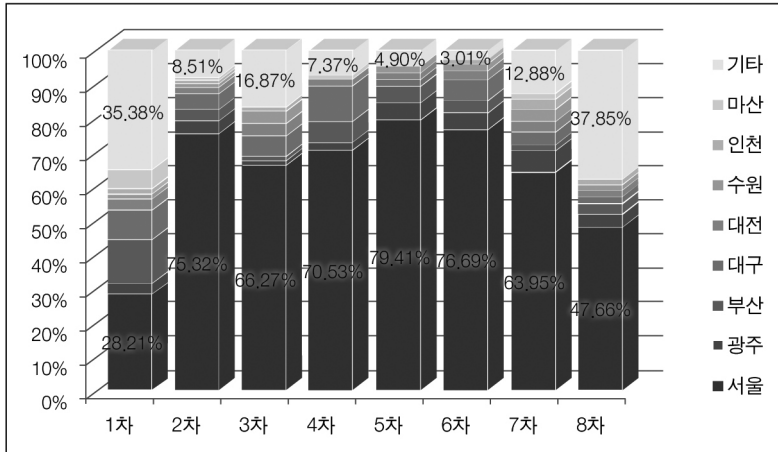
셋째, 거대한 저항주기들이 출현했던 1960년대와 1980년대의 경우 시위발생의 지역적 분산성 혹은 확산성이 집중성보다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1960년 4월혁명이 들어찬 1차 주기와 1987년의 6월민주항쟁으로 고조된 8차 주기에서 지역적 분산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이 사회체제 전역에 고조된 갈등의 전국화 국면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저항주기의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이제 저항주기를 중심으로 시위발생의 지역적 구성변화에 관해 살펴 보자. 우선, 1차 주기는 다른 주기들과 비교해 서울에서의 시위발생률이 28.21%로 현저하게 낮다. 대신에 부산(12.82%), 대구(8.72%), 마산(5.64%), 그 밖의 기타 지역(35.38%)에서의 시위발생률이 높게 나타나 시위의 분산성이 대단히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는 4월혁명이 들어찬 1차 주기의 경우 대구, 마산, 부산, 대전, 광주 등 전국적 수준에서 저항의 발화점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2차 주기는 서울에서의 시위발생률이 75.32%로 집중된 반면, 대구(4.68%), 광주(3.83%), 부산(3.40%)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의 시위발생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이 주로 서울지역의 대학생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3차 주기는 2차 주기와 비교해 서울에서의 시위발생률이 66.27%로 다소 낮아졌다. 대신 기타 지역(16.87%)과 대구(6.02%), 대전(3.61%), 수원(3.61%) 등지에서의 시위발생률이 높아졌다. 4차 주기는 서울(70.53%), 대구(10.53%), 부산(6.32%)에서의 높은 시위발생률로 나머지 지역들에서의 상대적 약세가 두드러졌다.

1970년대의 5차 주기와 6차 주기는 다른 저항주기에 비해 서울에서의 시위발생 비율이 가장 높았음을 보여준다. 5차, 6차 주기에서 서울의 시위발생 비율은 각각 79.41%와 76.69%를 보여 광주, 부산, 대구의 대도시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에서의 시위발생률이 낮게 나타났다. 1980년의 7차 주기는 서울(63.95%)을 제외하고 광주에서의 시위발생

〈그림 4〉 저항주기에서 시위발생지역의 비중 변화



률이 6.44%로 가장 높게 기록된 동시에, 나머지 대도시들 사이의 발생률 격차가 가장 좁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8차 주기는 서울의 시위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47.66%를 보인 반면, 기타 지역에서의 비율이 37.85%로 다른 저항주기들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7개 도시들의 시위발생률은 총 14.5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런 8차 주기의 특징을 다른 주기들과 비교했을 때, 서울에서의 시위발생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역에서의 시위발생률이 높다는 점에서 1차 주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에서 강조되는 핵심적인 요점은 1차 주기와 8차 주기가 전국적 수준에서 고조된 저항주기로서의 특징을 가장 충족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은 사회체제 전역에서 확산되고

고조된 집합적 저항의 규모와 강도를 저항주기로 증폭시킨 전형적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5. 저항주기의 주체형성: 시위참여세력의 사회조직적 구성

민주화시위에 참여한 주체 혹은 세력은 누구였나? 기존의 논의들은 민주화시위의 참가자들을 민중이나 계급, 대중 또는 시민 등으로 명명하였다. 시위의 참가자들을 이처럼 단일한 개념적 주체단위로 규정하는 것은 거대한 저항의 주체적 통일성을 강조하면서 운동참여의 복합적 동기를 한데 모아 불러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기존 논의들은 운동참가자들의 다원적인 사회조직적 구성수준을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설령 운동참가자들의 주체적 다양성을 염두에 두었다 하더라도, 주로 희생자들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우회적 설명방식에 의존해왔다. 게다가 연구자들의 주관적 직관으로 운동주체를 규정하거나 운동기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세력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명명되는 측면이 발생하기도 했다(홍성태 2010).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에 제한적인 답변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첫째, 통시적 관점에서 민주화운동의 참가세력 및 주도세력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시위 참가자들의 사회구성적 갈래를 어떻게 구분하고 이해할 것인가? 셋째, 연합시위 혹은 연대운동이 활성화된

시점과 그 조건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물음들이 시위참가자들에게 대한 주관적 직관이나 이데올로기적 해석을 경험적 분석의 지평 위에서 재검토하도록 만든다.

〈표 5〉는 민주화시위의 발생 건수를 기준으로 참가 세력들의 시위점유율을 도출한 것이다. 시위에 참가한 저항세력들의 단위를 세분화해 저항주체의 사회조직적 구성 변화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표에서 확연히 드러나듯이, 민주화운동의 전체 기간을 놓고 볼 때 대학생들의 시위점유율이 8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논의에서 확인하겠지만, 대학생들의 시위참여는 2차 주기에 들어찬 1964~1965년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기점으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이후 대학생들은 민주화운동의 선도 세력이 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1960년 4월혁명 당시 대학생들보다 시위참여가 두 배 이상 많았던 고등학생들의 시위점유율은 1970년대 들어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고등학생들의 시위점유율은 18.82%였으나, 1970년대에 2.18%로 크게 감소했고, 1980년대에는 0.07%

〈표 5〉 시위참여세력의 사회조직적 구성, 1960~1987

구분	시위발생 건수 대비 점유율 (%)										
	고등 학생	대학생	시민	학생 + 시민	학생 + 노동자	시민 조직	정치 조직	종교 조직	복합체*	기타**	합계
1960년대	18.82	53.75	3.19	7.18	-	3.51	7.34	0.16	3.51	3.51	100%
1970년대	2.18	85.84	0.87	0.44	-	3.05	1.31	3.70	-	2.61	100%
1980년대	0.07	85.97	0.17	5.54	0.92	0.51	0.36	1.95	3.09	1.42	100%
전체	2.50	82.10	0.59	5.29	0.73	1.09	1.28	1.89	2.87	1.66	100%

주: * 복합체: 앞의 8가지 항목에 속하지 않는 저항주체들의 복합적 구성(예: 당원+학생+시민)

** 기타: 노동자, 노조, 교사, 언론인, 출판인, 자영업자, 철거민 등

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개별 시민들의 시위참여는 1960년대 이후 —정확히 말하자면 1960년 4월혁명 이후—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960년대 3.19%에서 1970년대 0.87%로 그리고 1980년대 0.17%로 점유율이 크게 감소했다. 특히 학생들과의 동조시위가 가장 많았던 1960년과 1987년을 제외하면 개별 시민들의 시위점유율은 상당히 낮은 수치로 기록된다. 이러한 경향은 여성단체, 기념단체, 재야단체를 비롯한 여러 시민조직들에서도 발견된다. 시민조직들은 1960년대 3.51%의 비교적 높은 시위점유율을 보였지만 1970년대 3.05% 그리고 1980년대 0.51%로 그 비율이 크게 감소했다. 그럼에도 학생과 시민들의 동조 시위는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의 영향으로 전체 민주화시위 가운데 5.2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대학생과 노동자들의 연합시위, 즉 거리 위의 ‘노학연대’가 1980년대 민주화시위를 통해 본격화되었다는 점이다. 물론 학생들이 노동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은 전태일의 분신자살을 계기로 한 1970년대 초부터였다. 그러나 당시 학생들의 노동운동은 박정희의 삼엄한 노동(운동)통제체제 하에서 의식화와 조직화를 목적으로 한 위장취업의 방식, 즉 내밀하게 현장적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대학과 노동의 가시적 연대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한 가운데 1984년 9월 ‘노동3권 보장과 청계피복노조 인정’을 외치며 노동자와 대학생의 연합시위가 거리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⁴⁾ 이후 노학연대는 1980년대 사회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넘어 전

형적인 연대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다른 한편, 민주화시위에서 정치조직의 참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선거가 빈번했던 1960년대에 7.34%의 높은 시위점유율을 보였지만, 유신체제하에서 정치인들이나 당원들의 시위참여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었던 1970년대에는 1.31%로 크게 낮아졌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0.36% 수준의 시위점유율을 기록했다. 정치조직과는 대조적으로 종교조직의 시위참여는 1970년대 이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록 종교조직의 운동이 전체 시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0.16%, 1970년대 3.70%, 1980년대 1.95%로 1970년대에 두드러졌지만, 종교조직의 전체 시위 건수를 기준으로 시대별 운동량을 비교해보면 1960년대 1%, 1970년대 17%, 1980년대 82%로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시 말해 종교 세력의 민주화운동은 1980년대에 비로소 그

-
- 4) 여기에는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의 전략관계적 재편을 구조적으로 유인한 전두환 정권의 자유화조치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자유화조치를 기점으로 대학가는 학원자율화 투쟁을 통해, 노동계는 민주노조 건설을 향해 동원전략을 가다듬으며 공동의 전략적 목표를 이루는 이데올로기적 접점을 형성할 수 있었다. 특히 정치적 기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은 강력한 권위주의국가에 대항하기 위한 광범한 동맹전략의 일환으로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취했다. 학생들은 노동자들을 더 이상 인도주의적 관심의 대상으로 정의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정치적 동맹세력이자 가장 강력한 잠재적 사회 변혁 세력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과제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고양하는 것과 노동자의 노조조직을 돕고, 그들의 노동투쟁을 더 큰 정치적 목표로 이끄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구해근 2002, 160).

정점을 이룬다.

그 밖에 시위참여의 사회조직적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가운데 주목할 대목은 복합체로 구성된 저항세력의 형성이다. 학생, 시민, 정치인, 노동자, 종교인 등 여러 참여세력이 연합하여 시위를 주도한 경향이 1960년대와 1980년대, 특히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1960년대의 복합체가 주로 탈조직화된 대중 동원의 형태를 보인 반면, 1980년대에는 재야단체나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한 조직화된 동원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경향은 둘 이상의 개별 단위가 시위에 함께 참여하는 연합시위의 비중 변화와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연합시위는 1960년대 초 중반과 1980년대 중후반의 민주화운동에서 나타난 특징적인 시위 양상으로 전체 시위 가운데 18%를 이룬다.

그렇다면 저항주기에서 나타난 주체별 시위점유율은 어떠한가? 우리는 <표 6>을 통해 저항주체의 사회조직적 구성과 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8차 주기는 시위참가세력의 사회조직적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 특히 비교의 관점에서 다른 저항주기의 주체적 다양성을 고려할 때, 8차 주기는 거리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노학연대뿐만 아니라 — 4월혁명의 1차 주기를 제외하고 — 학생과 시민 그리고 복합체에 의한 대규모 동원이라는 측면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실제로 8차 주기에서 학생과 노동자의 거리연대가 최초로 이루어져 전체 시위 가운데 1.03%를 차지했다. 또한 학생과 시민의 동조시위가 6.11%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복합체 형태의 연합시위도 3.46%로 다

〈표 6〉 저항의 주기에서 시위참여세력의 사회조직적 구성

구분	시위발생 건수 대비 점유율 (%)										
	고등 학생	대학생	시민	학생 + 시민	학생 + 노동자	시민 조직	정치 조직	종교 조직	복합체	기타	합계
1차 주기(1960-61)	26.67	14.36	6.15	22.56	-	8.72	4.10	-	10.26	7.18	100%
2차 주기(1964-65)	16.17	75.32	2.55	0.43	-	0.85	2.98	0.43	0.85	0.43	100%
3차 주기(1967)	31.33	50.60	-	-	-	-	18.07	-	-	-	100%
4차 주기(1969)	1.05	86.32	1.05	-	-	-	11.58	-	-	-	100%
5차 주기(1971)	-	90.20	0.98	-	-	0.98	4.90	2.94	-	-	100%
6차 주기(1973-75)	3.01	90.23	-	-	-	0.75	0.38	3.01	-	2.63	100%
7차 주기(1980)	0.43	97.85	-	1.72	-	-	-	-	-	-	100%
8차 주기(1984-87)	0.05	84.43	0.19	6.11	1.03	0.57	0.41	2.16	3.46	1.60	100%
전체	2.61	81.74	0.55	5.60	0.77	0.88	1.26	1.87	3.06	1.65	100%

른 주기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보였다.

둘째, 1차 주기와 3차 주기는 고등학생 세력의 시위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1차 주기에서 보인 고등학생들의 높은 시위점유율은 3차 주기의 그것과 두 가지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하나는 1차 주기가 고등학생들의 시위로 촉발된 저항주기였다면, 3차 주기는 주로 대학생과 정치조직의 주도로 시위가 확산되어 고등학생들의 참여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학원을 정치도구화 말라”며 시위를 벌인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의 저항은 4월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3차 주기를 이룬 ‘6·8부정선거규탄시위’는 처음부터 신민당 당원들의 조직적인 시위로 시작되어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순차적 참여로 확산되었다. 또한 1차 주기에서 나타난 고등학생의 선도적인 시위참여는 전국적인 수준에 걸쳐 확산되었지만, 3차 주기에서는 대부분 서울에 집중되었다. 그럼에도 1차

주기와 3차 주기는 1960년대 민주화시위의 주도세력으로서 고등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역량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임에 틀림없다.

셋째, 1차 주기와 비교해 2차 주기에서는 대학생 세력의 시위점유율이 크게 증가한 반면 나머지 세력들의 점유율은 현저히 감소했다. 예를 들어 1차 주기에서 26.67%의 시위점유율을 기록한 고등학생 세력은 2차 주기에 들어 16.17%로 감소했다. 개별 시민들의 참여도 6.15%에서 2.55%로, 학생과 시민의 동조시위도 22.56%에서 0.43%로 그 비중이 크게 줄었다. 그 밖에 시민조직, 정치조직, 복합체 등의 조직적 참여도 각각 8.72%에서 0.85%로, 4.10%에서 2.98%로, 10.26%에서 0.85%로 현저히 줄었다. 반면 대학생들의 시위점유율은 14.36%에서 75.32%로 1차 주기에 비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1차 주기에서 2차 주기로 이행하면서 나타난 가장 특징적인 변화는 한일협정반대운동을 기점으로 운동의 공간으로서 대학과 서울의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성직자와 신도들의 대규모 시위참여(1965.8.15)가 최초로 이루어진 특징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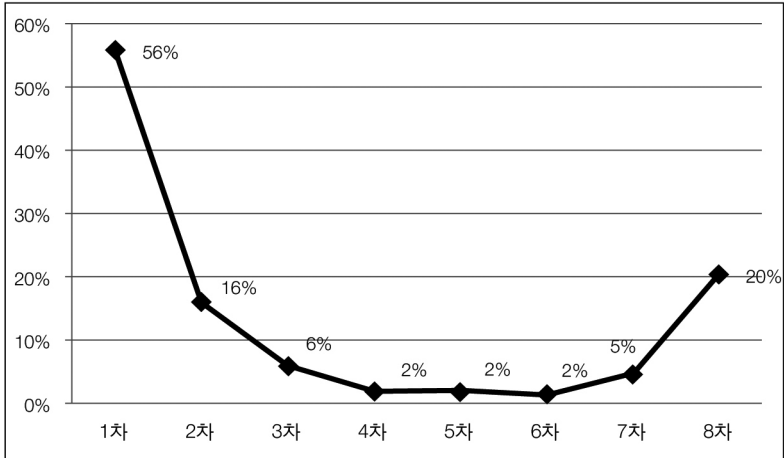
넷째, 4차 주기는 3차 주기와 달리 고등학생의 시위참여가 현저히 줄어들고, 2차 주기와 마찬가지로 대학생 세력의 시위점유율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치조직의 시위점유율은 3차 주기의 18.07%에서 11.58%로 감소했지만, 학생 세력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저항세력들의 부재 속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다. 이후 대학생들은 1970년대의 5차 주기와 6차 주기를 거치며 민주화운동에서 지배적인 운동세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리고 1980년의 7차 주기에서 전체 시위 가운데 97.85%라는

압도적으로 높은 시위점유율을 보였다.

여기서 우리는 저항주기의 주체형성에서 나타난 또 다른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운동 참여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연합시위의 점유율과 구성수준의 변화이다. 연합시위는 저항주체의 사회조직적 단위들 간 또는 단위 내에서 형성된다. 예를 들어 전자의 경우는 학생세력과 시민세력, 시민조직과 종교조직, 학생세력과 종교조직 등 이질적 단위들 간의 다양한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후자는 대학들 간의 연합시위, 시민조직들 간의 연합시위, 종교조직들 간의 연합시위와 같은 형태로 동질적 단위 안에서 구성된다. 다만, 대학들 간의 연합시위에 동조한 개별 시민들의 시위참여와 같은 복합적 형태는 사회조직적 단위들 간의 연합시위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그림 5〉는 각 저항의 주기에서 나타난 연합시위의 구성비 변화를 보여준다. 8차례의 저항주기 가운데 연합시위의 비중이 가장 높은 주기는 1차 주기로, 195건의 시위 중 56%가 연합시위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다음으로 연합시위의 비중이 높은 저항주기는 8차 주기로 전체 3,699건의 시위 중에서 20%가 연합시위의 형태를 보였다. 이어 2차 주기는 16%, 3차 주기는 6%, 7차 주기는 5%가 연합시위로 전개되었다. 나머지 4차, 5차, 6차에 걸친 세 주기에서 나타난 연합시위의 구성비는 대단히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저항주기에서 나타난 연합시위는 최초의 1차 주기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구성비를 보였으나, 2차 주기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어져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까지 저조한 구성비를 나타냈다. 그러다 1980년의 7차 주기부터 연합시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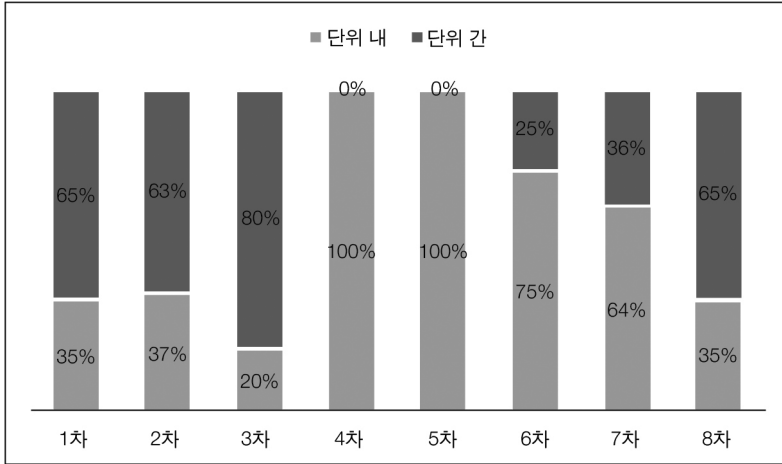
〈그림 5〉 저항주기에서 연합시위의 구성비 변화



다소 회복세를 보였고 8차 주기에는 20%의 상대적으로 높은 구성비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저항주기를 거듭하며 나타난 연합시위의 구성비는 느슨한 U자 곡선의 형태로 재현되었다.

그렇다면,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연합시위가 활성화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정치적 기회구조의 측면에서 운동세력들 간의 연대를 가로막는 국가권력의 탄압력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1969년의 4차 주기에 들어선 3선개헌반대운동, 1971년 5차 주기의 교련철폐운동, 1973~75년 6차 주기의 유신반대운동은 박정희 정권의 탄압력이 저항력을 압도함으로써 연합시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시기에서 발생하였다. 특히 이 시기 학생운동의 경우 연합시위를 위한 가두 진출이 봉쇄됨에 따라 대부분의 시위가 교내시위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림 6〉 연합시위의 단위 내/간 구성비 변화



또한 운동의 동원화와 조직화의 측면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조직 간 연대를 위한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탓도 컸다. 삼엄한 감시망하에서 은밀히 조직된 시위조차도 거리로 나서거나 다른 단위와 결합할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유신체제와 긴급조치로 상징화된 박정희 정권의 폭압적인 정치적 기회구조가 운동의 조직력과 저항력을 고립시키거나 원천적으로 무력화하기에 충분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위와 같은 측면에서 연합시위의 점유율 변화를 내적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림 6〉은 개별 저항주기들에서 나타난 연합시위의 단위 내/간 구성비율을 보여준다. 이는 연합시위가 사회조직적 구성단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혹은 구성단위 간

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견되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앞서 논의한 4차, 5차, 6차 주기의 낮은 연합시위 비율이 실제로 단위 간 연대가 아닌 단위 내 연대에 기초한 것이었음을 확증할 수 있다.

전체 저항주기 가운데 연합시위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던 1차 주기의 경우 단위 내 구성률은 35%, 단위 간 구성률은 65%로 나타났다. 특히 단위 간 구성률은 학생과 시민의 연합시위 혹은 동조 시위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합시위의 비중이 높았던 8차 주기도 단위 내 구성률이 35%, 단위 간 구성률이 65%로 1차 주기와 같은 구성수준을 보였다. 연합시위를 구성하는 이러한 형태의 단위 내/간 비율은 연합시위의 점유율이 세 번째로 높은 2차 주기에서도 나타난다. 2차 주기의 연합시위는 37%의 단위 내 구성률과 63%의 단위 간 구성률을 보였다.

여기서 우리는 연합시위의 구성비율과 구성수준 사이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읽어낼 수 있다. 즉, 저항주기에서 연합시위의 구성비가 15%이상으로 높게 나타날 경우, 그 연합시위는 단위 내 구성보다 단위 간 구성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경향을 1차 주기, 2차 주기 그리고 8차 주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 특히 이는 시위참여의 사회조직적 구성에서 나타난 참가세력 가운데 복합체가 활성화되

5) 연합시위 가운데 단위 간 구성 수준이 가장 높았던 1967년의 3차 주기는 해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다른 저항주기들과 비교했을 때 시위빈도가 83건으로 가장 적은 가운데 연합시위의 비율은 5건(6%)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3차 주기의 연합시위 구성을 단위 내 또는 단위 간의 차이에서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성을 갖지 못한다.

있던 1차 주기(5.63%)와 2차 주기(0.85%) 그리고 8차 주기(3.46%)의 구성적 특징과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저항주기에 형성된 연합시위의 단위 내/간의 비율 차이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였다. 특히 정치적 기회구조의 폭압성을 차치하더라도, 앞선 <표 6>에서 확인했듯이, 3선개헌반대운동이 들어찬 4차 주기의 경우 다른 세력들의 부재 속에서 학생세력과 정치조직의 시위점유율이 높았다. 또한 1971년의 5차 주기에서도 교련철폐운동이라는 대학 중심의 운동이슈가 활성화된 측면이 컸기 때문에 단위 내 연합시위의 운동조건이 형성될 수 있었다. 결국 연합시위의 조건을 규정짓는 요인은 정치적 기회구조, 저항의 촉발사건, 저항프레임, 운동주체의 역량 등을 포괄한 전략적인 문제와 결부된다고 요약할 수 있다.

6.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구조화한 저항주기의 궤적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저항사건분석을 동원해 사회변동의 리듬 위에서 고조된 거대한 집합적 저항의 내막을 살피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 이제 서두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반추하면서 기존 사회변동의 리듬 위에서 새로운 사회변동을 쫓았던 저항주기의 구성적 특징을 요약해보자.

첫째, 민주화운동의 전체사는 수많은 집합적 저항이 일정한 기간동안

퇴적층을 이루어 형성된 총 여덟 차례의 저항주기를 내포하고 있다. 1960년대에는 1960~1961년의 1차 주기, 1964~1965년의 2차 주기, 1967년의 3차 주기, 1969년의 4차 주기가 도드라졌다. 1970년대에는 1971년의 5차 주기와 1973~1975년의 6차 주기가 들어섰다. 1980년대에는 1980년의 7차 주기와 1984~1987년의 8차 주기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들 저항주기에는 집합적 저항의 거대한 집락구조를 이루는 역사적 사회운동이 들어 있다. 4월혁명(1차 주기), 한일협정반대운동(2차 주기), 6·8 부정선거규탄시위(3차 주기), 3선개헌반대운동(4차 주기), 교련철폐운동과 4·27부정선거규탄시위(5차 주기), 유신반대운동(6차 주기), 서울의 봄과 광주민중항쟁(7차 주기), 마지막으로 6월민주항쟁(8차 주기)이 그것이다. 그런데 저항의 빈도와 동원규모, 지속도의 측면에서 저항주기의 입체적 크기를 산출해보면, 1차, 2차, 6차, 7차, 8차 저항주기가 상대적으로 도드라진다. 이 가운데 아래로부터의 사회변동으로 맥락화된 가장 강력한 집합적 저항이 6월민주항쟁의 저항주기를 형성했다.

둘째, 시위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재정의한 저항주기의 공간구조는 집합적 저항의 지리적 분산과 집중에 관한 주기별 특성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준다. 우선 4월혁명의 1차 주기는 서울의 시위 집중성(28.21%)이 매우 약한 반면 대도시(36.41%)를 포함한 기타 지역들(35.38%)로의 분산성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났다. 이와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저항주기는 6월민주항쟁이 들어찬 8차 주기인데, 1차 주기와 비교해 서울의 시위 집중성(47.66%)은 강하고 대도시(14.49%)의 집중성은 약한 반면 기타 지역(37.85%)으로의 시위 분산성은 가장 크게 두드러졌다. 그 밖에 서울의

시위 집중성이 가장 강한 저항주기는 교련철폐운동과 4·27부정선거탄시위가 들어찬 5차 주기(79.41%)로 기록되었고, 유신반대운동의 6차 주기(76.69%)가 그 다음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1970년대의 저항 주기는 서울 집중성을 강하게 드러냈다. 이와 반대로 서울과 대도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시위 분산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저항주기는 6·8부정선거탄시위의 3차 주기(16.87%)와 광주민중항쟁의 7차 주기(12.88%)를 들 수 있다. 그럼에도 저항주기의 공간구조에서 발견되는 요점은 1차 주기와 8차 주기가 사회체계 전역에서 확산되고 고조된 저항 주기로서의 전형을 충족한다는 것이다.

셋째, 저항주기에 참여한 사회세력의 구성적 특징에서도 주기별 차이가 두드러진다. 4월혁명이 들어 있는 1차 주기는 대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시위참여가 유일하게 많았다. 또한 학생과 시민의 동조시위뿐만 아니라 조직화되지 않은 시민세력, 시민조직과 복합체의 시위참여가 가장 활성화된 저항주기였다. 한일협정반대운동의 2차 주기에서는 고등학생의 시위참여는 감소한 대신에 대학생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또한 저항세력으로서 종교조직의 분출도 특징적인 현상으로 두드러졌다. 부정선거가 저항 이슈로 증폭된 3차 주기에서는 대학생을 제외한 다른 저항세력의 부재 속에서 다시 고등학생과 정치조직의 시위참여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3선개헌반대운동의 4차 주기는 대학생의 시위참여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정치조직의 집합적 저항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저항주기에서는 대학생 세력의 주류화 경향과 종교조직의 시위참여 활성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항주체로서 대

학생 세력의 주류화는 1980년의 7차 주기에서 절정에 이른다. 마지막으로 최대 규모의 저항주기를 이룬 8차 주기에서는 시위에 참가한 다양한 사회세력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다른 저항주기들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노학연대가 활성화되었고 1차 주기 이후 침체된 학생과 시민의 동조 시위, 재야와 종교 세력을 중심으로 한 복합체적 형태의 연합 시위가 큰 비중을 보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집합적 저항의 강력한 폭발력은 저항의 지리적 편재성과 폭넓은 사회적 연대의 조건에서 창출된다는 점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저항주기의 발생학적 차원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분석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역사적 사회운동은 저항주기의 형성을 발생학적 차원에서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역사적 사회운동은 집합적 저항의 사건사적 맥락이 밀도 높은 집락구조를 이루는 조건에서 분출해 저항주기를 구조화한다. 다시 말해 역사적 사회운동의 발생시점, 동원규모와 지속의 정도에 따라 저항주기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결국 1960년대의 4월혁명과 한일협정반대운동, 1970년대의 유신반대운동, 1980년대의 광주민중항쟁과 6월민주항쟁이 들어찬 저항주기의 같음과 다름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회운동의 구성적 특징에 기초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저항주기의 공간구조는 도시의 저항성과 저항의 지리적 편재성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저항주기의 발생학적 차원을 공간적으로 재정의하게 만든다. 특히 저항주기가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얼마나 강도 높게, 폭넓게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집합적 저항의 지역적 동원구조를 정밀하

게 살필 수 있게 한다. 또한 저항주기의 지역적 확산과 집중이 역사적 사회운동의 지리적 공간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집합적 저항의 과급효과를 다층적으로 규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맥락에서 4월혁명과 6월민주항쟁은 다른 역사적 사회운동들과 다르게 저항주기를 전국적 수준으로 증폭시켜 운동의 직접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낸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저항주기는 저항주체의 사회구성적 변화를 내포한다. 이는 저항주기의 발생학적 차원을 저항의 주체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실제로 4월혁명의 1차 주기에서는 고등학생과 시민이 저항의 핵심세력으로 부상했으며, 한일협정반대운동이 들어선 2차 주기 이후 대학생이 저항의 선도세력으로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대학은 저항의 거점이자 저항주체의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변모했다. 특히 1970년대 폭압적인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건에서 대학생은 저항의 주류세력이 되었고, 미약하게나마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상대적 자율성을 갖고 있던 종교조직과 재야세력은 저항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했다. 1980년대에는 저항주체의 다변화와 함께 재야의 구심력과 노학연대의 급진성을 중심으로 저항네트워크가 확장되었다. 6월민주항쟁은 이러한 저항주체의 사회구성적 복합성과 다양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저항주기 궤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사회변동을 추동한 집합적 저항의 변형과정을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집합적 행위는 거시역사적 규정력을 갖는

역사국면의 리듬 변화 위에서 그 자체만으로 온전한 자기운동성을 가질 수 없다. 집합적 행위로서의 사회운동이 배태한 운동성이란 사회변동의 역사국면에 조응하는 정치적 기회구조와 사건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운동의 조직, 자원, 문화, 리더십 등 거시와 미시, 구조와 행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사회구성적으로 착종된 결과로 구체화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운동전략’, 즉 사회운동을 목표지향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선택적 행위과정의 맥락화 혹은 총체적 기획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저항주기의 구조와 동학을 ‘전략 연구’의 틀에서 더욱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정치적 기회구조의 조건에서 저항주기의 ‘전략과 프레임’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를 규명하면서, 공간과 행위의 전술이라는 측면에서 ‘전술적 레퍼토리’의 변화과정을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저항과 억압의 전술적 상호작용을 ‘폭력성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운동전략에 관한 연속적인 연구기획이 요구된다. 이로써 저항주기연구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는 저항주기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저항사건분석의 예비연구이자 선행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456~~

참고문헌

- 구해근. 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신광영 옮김. 서울: 창작과비평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4. 『민주화운동관련 사건·단체사건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연구(80년대) 보고서 I·II』.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6.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정일준. 2011. “박정희 정권기 개발독재 비판: 비교역사사회학적 접근.” 『역사비평』 통권 95호. 68-92.
- 정호기. 1996. “지배와 저항, 그리고 도시공간의 사회사: 충장로, 금남로를 중심으로.” 『현대사회과학연구』 제7권. 239-272.
- 조대엽. 2010. “4월혁명의 순환구조와 6·3항쟁.” 정근식·이호룡 엮음.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선인. 641-676.
- 홍덕화·구도완. 2014. “민주화 이후 한국 환경운동의 제도화와 안정화: 저항사건 분석(protest event analysis)을 중심으로.” 『ECO』 제18권 1호. 151-186.
- 홍성태. 2010.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 정근식·이호룡 엮음. 『4월혁명과 한국민주주의』. 서울: 선인. 677-712.
- Earl, Jennifer, Andrew Martin, John D. McCarthy, and Sarah A. Soule. 2004. “The Use of Newspaper Data in the Study of Collective Ac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0. 65-80.
- Eisinger, Peter K. 1973. “The Conditions of Protest Behavior in American Citi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7(1). 11-28.
- Giugni, Marco. 2004. *Social Protest and Policy Change: Ecology, Antinuclear, and Peace Movement in Comparative Perspective*. Lanham, MD:
- 280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34호)

Rowman & Littlefield,

- Jenkins, J. Craig and Charles Perrow. 1977. "Insurgency of the Powerless: Farm Worker Movements(1946-1972)."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2). 249-268.
- Koopmans, Ruud. 2004. "Protest in Time and Space: The Evolution of Waves of Contention." David A. Snow, Sarah Anne Soule, and Hanspeter Kriesi, eds. *The Blackwell Companion to Social Movements*, Malden, MA: Blackwell, 19-46.
- _____. 1993. "The Dynamics of Protest Waves: West Germany, 1965 to 1989."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5). 637-658.
- Koopmans, Ruud and Dieter Rucht. 2002. "Protest Event Analysis." Bert Klandermans and Suzanne Staggenborg, eds. *Methods of Social Movement Research*,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31-259.
- Kriesi, Hanspeter, Ruud Koopmans, Jan Willem Duyvendak, and Marco G. Giugni. 1995. *New Social Movements in Western Europe: A Comparative Analysis*,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McAdam, Doug. 1999[1982]. *Political Process and the Development of Black Insurgency, 1930-1970*(2nd e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Pile, Steve and Michael Keith, eds. 1997. *Geographies of Resistance*, New York, NY: Routledge.
- Rucht, Dieter. 1998. "The Structure and Culture of Collective Protest in Germany since 1950." David S. Meyer and Sidney Tarrow, eds. *The Social Movement Society: Contentious Politics for a New Century*,

-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29-57.
- Shin, Gi-Wook, Paul Y. Chang, Jung-eun Lee, and Sookyung Kim, 2007.
“South Korea’s Democracy Movement(1970-1993): Stanford Korea
Democracy Project Report.” Stanford University.
- Tarrow, Sidney. 1998[1994]. *Power in Movement: Social Movements and
Contentious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2nd ed),
_____. 1995. “Cycles of Collective Action: Between Moments of Madness and
the Repertoire of Contention,” Mark Traugott, ed. *Repertoires and
Cycles of Collective Action*,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89-115.
_____. 1989. *Democracy and Disorder: Protest and Politics in Italy,
1965-1975*. Oxford: Clarendon Press.

『경향신문』(1960~1987).

『동아일보』(1960~1987).

Abstract

The Trajectories of Protest Cycles and the Formation of Historical Social Movements in South Korea

Protest Event Analysis, 1960-1987

Hong, Sung-Tai

Korea University

This research seeks to empirically assess the protest cycles and their trajectories in South Korean democratization movements. Utilizing protest event analysis, following three research questions are dealt with. First, what type of protest cycles trajectories were formed by various protests that make up the layers of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trajectories of protest cycles are examined in terms of protest frequency, mobilization size and frame consistency. Second, how did the internal configurations of protest cycles in the spatial dimension; By looking at the regions of protests, geographical concentration and diffusion of protest cycles are reoriented empirically. Third, who were the main agents, social forces behind each protest cycles; Internal composition and the changes in the social forces participated in protest cycles are identified. Based on these inquiries, the dynamics of collective actions that formulated protest cycles in the history of democratization movement can be understood in a more embracive fashion. Empirical assessments on democratization movements are in dire need of reorientation. Going beyond the discourses of symbols and reinterpretations, the massive layers within them are to be revisited and

analyzed.

■ **Keyword:** Cycles of Protest, Historical Social Movement, Democratization
Movement, Protest Event Analysis, Social Change

투고 : 2016/3/31 심사 : 2016/4/18 확정 : 2016/5/17